

<표> '11년 1분기~'12년 2분기 음악산업(상장사별) 수출액 변동

(단위 : 억원, %)

구분	2011년 수출액						2012년 수출액			
	1분기 (전기대비)	2분기 (전기대비)	상반기 (전년동기)	3분기 (전기대비)	4분기 (전기대비)	2011년 (전년대비)	1분기 (전기대비)	2분기 (전기대비)	상반기 (전년동기)	2분기 (전년동기)
다날	0.0	0.0	0.0	0.0	0.0	0.0	0.0	0.0	0.0	-
로엔엔터테인먼트	0.0	0.0	0.0	0.0	0.0	0.0	0.0	6.1	6.1	-
CJ E&M	5.1	20.5	25.6	9.6	0.0	35.2	11.6	44.8	56.4	118.5%
SM엔터테인먼트	49.6	85.4	135.0	157.0	188.3	480.3	266.9	196.2	463.1	129.7%
소리바다	2.1	2.1	4.2	3.6	4.2	12.0	6.1	9.8	15.9	366.7%
예당엔터테인먼트	0.0	0.0	0.0	0.0	0.0	0.0	0.0	0.0	0.0	-
KT뮤직	0.0	0.0	0.0	0.0	0.0	0.0	0.0	0.0	0.0	-
네오위즈인터넷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캔들미디어	0.0	0.0	0.0	0.0	0.0	0.0	0.0	0.0	0.0	-
JYP엔터테인먼트	3.3	19.8	23.1	5.3	0.0	28.4	0.0	0.0	0.0	-100.0%
YG엔터테인먼트	0.0	0.0	0.0	0.0	318.4	318.4	39.5	114.9	154.4	-100.0%
합계	60.1	127.8	187.9	175.5	510.9	874.3	324.1	371.8	695.9	190.9%
	84.9%	112.6%	-38.5%	37.3%	191.1%	93.1%	-36.6%	14.7%	270.4%	

- 음악 '12년 2분기 수출액은 약 37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0.9%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14.7% 상승
- '12년 2분기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에서 수출액 비중은 11.4%로 전년동기대비 6.5%p 증가
- 음악은 '10년 2분기에서 4분기까지 하락세였지만 '12년 1분기의 하락을 제외하고, '11년 1분기부터 전분기대비 높은 상승세가 '12년 2분기까지 지속
 - ※ CJ E&M 음악부문, SM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 등 3개 업체의 '12년 2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18.5%, 129.7%, 366.7% 성장했으며, 규모면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이 음악 수출액 증가 주도
- SM엔터테인먼트 '12년 2분기 수출액은 약 196억 2천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9.7%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26.5% 하락. '11년 1분기 이후 전반적인 수출액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권 및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기인

※ YG엔터테인먼트 '12년 2분기 수출액은 약 114억 9천만원으로 자체 아이돌 음악을 중심으로 전체 음악 수출액 증가에 기여

- 소리바다 '12년 2분기 수출액은 약 9억 8천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6.7%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60.7% 상승
- CJ E&M 음악부문 '12년 2분기 수출액은 약 44억 8천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8.5%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286.2% 상승

- 음악 '12년 상반기 수출액은 약 69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0.4% 증가
 - CJ E&M 음악부문은 '12년 상반기 수출액의 경우 5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0.3% 증가
 - SM엔터테인먼트는 '12년 상반기 수출액의 경우 46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3.0% 증가

<그림> '11년 2분기~'12년 2분기 음악(상장사) 수출액 변동

(단위 : 억원, %)

